

# 13년 방치 서방지하상가 또 다시 졸속 행정 '악몽'

## 'LED 식물재배공장' 부활 추진 2년만에 광주시 광케이블 이설비 부담에 결국 포기

서방지하상가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됐다. 광주시가 10년 넘게 방치됐던 서방지하상가를 'LED 식물재배공장'으로 부활시키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은 지 2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면서다. 중단된 서방지하상가 조성 사업이 영터리 수요예측과 타당성조사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전례를 그대로 답습,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서방지하상가에 LED(발광다이오드) 식물재배 시설과 전시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기업과 맺었던 협약을 해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재배 공장 추진'이라는 자료를 내며 추진한 뒤 불과 2년 만에 '엎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해당 공사 구간에 대량 매설된 광케이블 이설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게 직접적 사업 포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사업 효율성 및 민간사업자 확보 등을 위해 기반시설에 26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마저도 민간사업자와 광주시가 총 사업비(67억)의 3분의 1이 넘는 이설비용(21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케이블 매설 여부 등은 애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

### 서방지하상가 추진 일지



- ▲1995년 첫 사업계획 수립
- ▲1997년 2월 주민투표 거쳐 착공
- ▲1999년 시공사 자금난 등 중단 (공정률 31%)
- ▲2012년 5월 'LED 식물재배 공장' 추진
- ▲2013년 5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 ▲2014년 12월 협약 해지

었다는 점에서 치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로 추진했던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24억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했던 ▲땅콩새싹 재배사(892㎡) ▲LED식물 재배사(99㎡) ▲문화공간(528㎡)과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26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물거품

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방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의 ▲유치원 견학코스 활용 ▲주민 일자리 제공 ▲지하보도 설치 등의 의견과 연간 5~7%의 수익금을 광주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내용도 없던 일로 됐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서방지하상가가 영터리 수요예측과 전시행정이 보태지면서 자초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는 커녕, 재차 반복했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서방지하상가를 사람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부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지자체의 '청사진'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던 지역민들만 상처를 입게 됐다.

서방지하상가는 '민간투자공모방식'으로 지난 1997년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공사로 인해 8차선 도로가 파헤쳐지면서 교통체증과 함께 서방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60%이상 급감했다. 분양조차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과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케이블 이설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투자업체와 논의 끝에 사업을 전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방지하상가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희망산타 떴어요** 성탄절을 사들인 22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매곡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촛불을 들고 캐롤송을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매곡동 주민센터는 23일과 24일 성암교회 비전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매화골 희망산타 대작전을 열고 사랑나눔공연과 길거리 반개산타를 펼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도박빚 갚으려 32억원 채용 사기 기아차 전·현 노조간부 4명 영장

### 개인 비리...실체 취입은 안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채용 사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조직적인 채용 비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지인들을

피어 수십억 원을 행간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홍모(34)·김모(42) 등 전·현직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2010년부터 4년간 "회사 채용과 잘 알고 노조 간부 경력이 있어 채용시켜 줄 수 있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지인 등 60여 명으로부터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씩 총 3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 4명은 기아차 생산직 직원들인 동료 25명 등 27명과 함께 회사 인근 유흥과 모텔 등지에서 122차례에 걸쳐 판돈 17억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도박빚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김씨 등 3명과 함께 취업사기 행각을 벌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사기 피해가 컸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취업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올 때마다 홍씨 등이 추가로 채용사기에 나서 마련한 돈을 되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영터리 수요 예측+전시행정...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 서방지하상가 '악몽의 드라마'

### 극심한 교통체증 시달리고

### 상인들은 매출 60% 급락

서방지하상가는 책상머리 생각만으로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꼽힌다.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됐던 상가는 3대 시장(강운태·송연중·고재유)을 거치며 끝내 중단됐다.

시민들은 조성 사업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고 주변 상인들은 60%까지 급락하는 매출을 감수해야 했다.

영터리 수요 예측에 전시 행정이 보태

진 결과지만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 어낸 책임은 전혀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서방지하상가 악몽의 드라마는 관선 마지막 시장인 강운태씨가 임기 만료 직전 '민간투자공모방식'의 상가 조성에 사인하면서 시작됐다. 민선 1기 송연중시장은 주민 찬성을 얻어 1997년 2월 공사를 강행했고 고재유 시장은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3대 시장에 걸쳐 진행됐다. 공사 착공 2년 만인 1999년 시공사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전체 385m 중 135m만 완공한 상태(공정률 31%)에서 전면 중단될 당시 당시 상가 218동 가운데 고작 3동만 분양하는데 그쳤다. 현재도 지하 8~9m 깊이에 1260평의 구조물이 방치된 상태다.

당시 주민들은 상가 조성 공사로 8차로 도로가 파헤쳐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상가 매출은 60%까지 급락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붕괴 방지 공사를 실시하고 정기적 안전점검만 진행하며 '땀질' 보수를 해오다 지난 2012년 'LED 식물재배 및 전시공간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재개됐다. 민간사업자를 선정된 뒤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했지만 광케이블 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끝내 포기됐다. 광케이블 문제 등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설픈 추진했던 전시행정이 빛은 서방지하상가의 '광량'이 또 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도박빚 갚아라" 동포 납치한 베트남 근로자들

### 영암경찰 2명 검거·4명 추적

도박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동포를 납치, 폭행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경찰은 22일 자국 동포를 납치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을 휘두른 베트남 국적 근로자 A(25)씨 등 2명을 강도 상해 혐의 등으로 불박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납치와 폭행을 주도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 C(33)씨 등 달아난 일당 4명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10시40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술집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28)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11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휴대 전화를 빼앗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들은 영암 삼호읍의 선박 제조 공장 등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D씨가 C씨에게 전 도박빚 1400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2년 기준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는 총 368건이며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중국(208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72건으로 기록됐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범죄 건수는 지난 2008년 15건에서 2012년 72건으로,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가 제자리걸음을 한 중국(226→208건), 필리핀(4→3건)과 달리 급증하는 추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시동전 채 편익점 간 틈에 차량털이



○~ 편의점 앞길에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된 운전자가 없는 차량만을 골라 물품을 탄 50대 남성이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정보(52)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관산구 쌍암동 C편의점 앞에 정차된 김모(여·48)씨의 SM5 승용차에서 47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강까지 네 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

○~마땅한 직업 없이 홀로 사는 정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에 나섰는데, 경찰은 편의점 앞길 등에서 차량털이가 기승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범행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으로 범행 패턴을 알아낸 뒤 잠복에 나섰다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신프리모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계약시 경품 영유권 포함)  
1등: 황금열쇠순금1방(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동인 1인 포함)3명

**선물2**  
1등: [기념품(책1)] [핸드크림] [지압세로]

**선물3**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1등: [통장지갑] [클라식틱 일제용기세트] [세라믹로팅 냄비]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격기준:  
-총자산 10억원 이상 실공과계  
-당기매출 1000만원 이상 기업규모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규모  
-경영관계, 자용채보환 가입규모  
-전차금융 신규자  
-자용이세 3년 이상 신규자  
-체크카드 신규자(최이상 이용과제)  
\*경품추첨일까지 경영유지 및 이월 기여자  
\*상기 자격기준은 특별히 한정

대인본점: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